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2. 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佛, 부르키나파소 파견 대테러부대 철수 결정
 - 1.26 佛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 정부로부터 프랑스軍 대테러부대 주둔을 허용하기로 한 '방위협정'을 폐기한다는 서한을 접수함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자국軍 대테러부대를 철수할 예정이라고 발표
 - * 부르키나파소에는 '18년부터 佛 특수부대원 200~400명이 주둔하며 작전 수행
- EU, '이란 혁명수비대' 테러단체 지정 검토
 - 1.30 언론은 지난주 열린 유럽연합(EU) 외교 장관회의에서 프랑스·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제재하기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(IRGC) 테러단체 지정을 지지했다고 보도
 - * 또한, 외국 정부가 한 국가의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이는 이란에 대한 EU의 강경 대응기조를 보여준다고 부언

미주

- 美NTAC, 최근 5년간 다중공격 대부분 '총기' 범죄
 - 1.26 美비밀경호국 국가위협평가센터(NTAC)는 최근 5년간('16~'20년) 발생한 사망자 3명 이상의 다중공격 173건 분석 결과, 공격에 사용된 무기 중 총기 126건(72.8%), 칼 등 흉기 28건(16.2%), 차량 18건(10.4%) 순이라고 발표
 - * 대상 사건 대부분은 남성(96%)이 자행한 단독범행으로 연령은 14~87세까지 분포
- 美, 캘리포니아 지역 연이은 '총기난사'로 21명 사망
 - 1.29 외신은 28일 02:30경(현지시각) 캘리포니아주 LA의 베벌리힐스 인근 부촌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3명 사망·4명이 부상당하였으며, 지난 10일간 캘리포니아 지역內 총 3건의 총기난사로 최소 21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
 - * △1.21 LA 댄스교습소 총격(사망 11) △1.23 샌프란시스코 농장 총격(사망 7)

아 · 태평양

○ 튀르키예, 자국민에 '유럽 여행 경보' 발령

- 1.30 튀르키예 외무부는 유럽에서 反튀르키예·이슬람 시위가 재발할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유럽 여행 경보를 내리고, 외국인 혐오나 인종 차별적 공격에 직면할 경우 즉시 대사관을 찾아갈 것을 권고
- * 지난 21일 스웨덴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덴마크 극우정당이 주도하는 反튀르키예 시위가 발생, 이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는 강하게 반발

○ 국내 연구진, 도심에서 '드론 무력화' 가능 기술 개발

- 1.31 카이스트(KAIST) 전기전자공학부 「김용대」 교수 연구팀은 협대역 전자파를 이용해 주변 전자장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심에서 목표 드론만 원격으로 즉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 개발
- * 同 연구는 기존 장비가 광대역 전자파를 이용함으로써 주변 전자·전기 장치에 피해를 일으켜 도심지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

중 동

○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총기테러 대응 '시민 무장강화' 선언

- 1.29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東예루살렘에서의 연이은 총격사건*에 대응, △시민 총기 면허취득 절차 간소화 △테러범 가족 시민권·사회보장혜택 박탈 △테러범 가택 철거 등 강경한 대테러 정책 발표
- * 1.27 東예루살렘 북부 유대교 회당에서 팔레스타인 청년 총기 난사(사망 7·부상 3) 등

아프리카

○ 美, 소말리아에서 'ISIS' 고위 간부 등 11명 사살

- 1.27 美행정부는 26일 소말리아 북부 은신처 등에 대한 美軍의 대테러 특수 작전(over the horizon, 지평선 너머)을 통해 ISIS 고위 자금책임 「빌랄 알수다니」*를 비롯한 조직원 11명을 사살하였다고 발표
- * '12년부터 '알샤바브' 재무국장으로 활동(당시 美재무부 제재대상으로 지목)

민주콩고, 이투리州 난민캠프 총기난사 테러

- '22.2.2, 02:00경 자동소총·마체테(정글도로 불리는 도검) 등으로 무장한 민주콩고 무장단체 콩고발전협동조합(CODECO) 조직원 수십명이 이투리州 난민캠프에 난입, 수 시간에 걸쳐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60명이 사망하고, 부상 40명 발생
 - * '이투리 지역'은 '72년부터 시작된 농업 중심의 '랜두族'과 목축업 중심의 '해마族' 간 영역 분쟁으로 각종 테러·군사적 충돌 빈번, 현재까지 약 6만명의 사상자 발생
- 사건 당일, 테러범들은 4천여명의 '해마族' 난민들이 수용된 난민 캠프로 진입하여 총기를 난사하고 마체테 등 흉기로 무차별 공격
 - 이들은 이른 새벽 시간 난민캠프內 전력시설을 무력화하여 혼란을 가중시켰으며, 목격자에 따르면 횃불을 들고 '사냥하듯' 희생자들을 공격
 - 난민 캠프 인근에는 프랑스·스웨덴 등 UN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, 해당 공격의 예방 또는 실시간 대응에는 실패
- 사건 직후, CODECO는 해당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였으며, 이후 민주콩고 정부군의 대테러작전이 수행되었으나 성과는 미미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콩고발전협동조합(CODECO) >

* Cooperat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go

- (결성) '70년 랜두(Lendu)族이 결성한 평화적 농업공동체로 운영 되었으나, 콩고 내전기를 거치며 '99년 반군 무장단체로 변모, 다수의 랜두族 무장단체가 동맹을 맺은 채 분권적으로 운영되며 느슨하게 결합된 '연합단체' 형태 유지
- (규모 / 활동지역) 약 2,400명 /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州 및 북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內 게릴라戰 및 민주콩고 주요도시 폭탄테러 등 자행, 군소 무장단체가 자율권을 갖고 활동하나, 필요시 정부軍 기지 공격 등 대규모 공세 수행
- (최근동향) 최초 영역분쟁에서 촉발된 투쟁목표(이투리 지역 석권)가 '이슬람' 종교 이념과 혼합되면서, 최근 ISIS 등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된 테러공격 빈도 증가